



1회 참교육학부모회 아카데미가 우리회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2009년 5월 2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백교회 안병무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학부모아카데미 워크숍

지난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학부모 아카데미 워크숍이 팀수양관 크리스하우스에서 있었다.

19명의 수강생과 강사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이번 워크숍은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운동>이란 화두로 한만중, 강순원 두 분 강사의 발제와 수강생 토론이 있었고 <새로운 학부모운동을 시작하며>라는 주제로 오성숙 강사의 발제와 윤숙자정책위원장이 진행하는 모듬토의가 있었다.

5월 21일 1강을 시작으로 11월 14일 수료식까지 12회로 진행된 제 1차 학부모아카데미는 2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외국어고 폐지와 대응방안 토론회

11월 23일 서울여성플라자 4층에서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우리회 포함 28개 단체) 주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어고 폐지와 그 해법을 찾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가 열렸다. 이른 시간

임에도 언론기관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장은숙 우리회 회장의 사회로 이종태(한국교육연구소 소장)님의 발제가 시작되었다. “외고의 언어영재 특목고로서의 지위는 폐기되 외국어교육 특성화 고교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도록 하는 1안과 “외국어교육으로 특성화하기보다 내용은 일반 고교교육과정을 유지하되 운영방식에서 미래지향적 혁신을 추구하는 고교”가 되도록하자는 2안을 제안하였다.

이어 김진표(민주당 의원, 전 교과부장관) 심성보(홍사단교육운동본부 대표, 부산대 교수) 김성천(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동훈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님의 토론이 펼쳐졌으며, “외고문제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교육적 시각에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는 성삼제(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 과장)님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 모처럼 정부관계자까지 참여한 토론회의 결과는 주최측에 의하여 교과부에 전달되었으며, 교과부는 다음 달 10일 외고문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제 및 토론문은 홈페이지자료실에 있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20년사 발간

1989년 9월 22일 창립된 우리회가 이제 만 스무살이 되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꾸준히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준 회원 여러분과 헌신적 봉사에 몸을 바친 임원들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공교육정상화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벌여온 그 수 많은 날들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의미있는 일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2008년 8월 1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대표 함세웅)와 우리 참학(당시 대표 윤숙자)이 우리회 20년사 발간사업을 위한 공동사업협정을 맺고 시작된 역사적 과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그 동안 자료조사와 발굴을 비롯하여 원고청탁과 검토 그리고 바쁜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여러분들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원고가 완성되어 출판사(민들레)에 넘겨졌으며 책이 12월 초순 경에 나오게 되면 중순경에 출판기념회및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학습부진아대책 토론회Ⓢ

12월 15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예정)

Ⓢ 참교육학부모회 20년사 출판기념회 및 토론회 Ⓢ

12월 18일(금) 오후 3시
서울 홍사단교육운동본부 강당

이달의 보도자료

전문은 홈페이지 상명서/보도자료 참조

- 11. 5 [공동성명서] 교과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 11. 6 [논평] 교과부는 경기교육감 직무이행명령 철회해야 한다
- 11. 16 [연대기자회견문] 2009개정(미래형) 교육과정 중단을 요구하는 교육주체(교수, 교사, 학부모, 학생) 1만인 선언

이달의 주요기사

- 02 교육공공성을 찾아서
교장 공모제 학교
- 04 교육자치
학교운영위원회 15년 좌담회
- 06 기획특집
2009년 교육 10대 뉴스

- 10 정책
학습 부진아 실태 분석
- 12 학부모 한마당
대학입시에 매몰되어...
- 15 사설
입학사정관제

1회 도서관 살리기

2회 교장공모제 학교

학교는 변할 수 있다

—경기도 양평 조현초등학교—



이중현
(조현초등학교 교장)
http://jhyeon.es.kr

교장공모제 시행 첫해에 공모 교장이 되었으니 2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흘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생이나 학부모, 외부의 반응을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다. 되돌아보면 모두 우리 선생님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한 예로 작년부터 지금까지 전학을 오겠다고 상담을 한 학부모는 20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농촌학교 대부분이 그렇듯이 우리 학교에서는 집을 구할 수가 없다. 가까운 먼 소재지에 집을 구하려고 해도 마찬가지다. 지난 여름 땀방에 집을 구하러 다니는 학부모를 볼 때 무척 미안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 정도였다. 어쩌면 다행이랄까? 그런 가운데도 20여명이 늘어나 전교생 100명에서 128명이 된 상태인데 학생 수가 급증한다면 작은학교로서 장점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2010학년도에는 150명을 넘길 것 같아서 선생님들의 고민이 크다.

조현초의 지향

조현초는 우리 교육의 과제를 바탕으로 학교의 지향을 크게 4가지로 정했다. 우리 학교의 모든 프로그램은 이 4가지 관점에서 구성되어 있다.

- 1) '교육내용의 다양화' 문제는 사교육 문제, 평준화와 비평준화 논쟁,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공교육 내실화 등으로 표현되는 우리 교육의 일반적인 과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노력
- 2) '도농격차 해소' 문제는 농촌 지역에 위치한 우리 학교의 특수성에 대한 대안
- 3)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학교'는 학교의 역할을 자녀를 가르치고, 학부모,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곳이라는 관점을 넘어 학교가 지역사회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보다 적극적인 시도
- 4) '교원의 자발성으로 농촌학교의 새로운 모델 만들기'

라는 것은 앞의 3가지를 이루기 위한 원동력은 결국 교원의 참여 여부에 달렸기 때문이다.

이 4가지 과제는 우리 교육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조현초의 존재 이유, 정체성의 문제가 될 것이다.

어떤 교육활동인가?

— 교육내용의 다양화
교육내용의 다양화를 위한 주요 사업은 '조현교육과정'이다. 이것은 획일적인 교육내용의 극복과 학교체제 중심의 다양화 방안에 대한 우리 학교 나름의 대안이며 미래사회의 변화와 지역, 학생의 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교과를 재구성하여 강조하는 내용으로 정규 교육활동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다.

도표와 같은 교육과정 재구성과 함께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객관식 평가를 지양하고 논술평가로 전환하는 일, 교내 평가에서 일제고사 형태를 없애는 일, 작가와 만남, 학년이 바뀔 때마다 다른 내용의 진로적성검사, 교과서 중심을 벗어나기 위한 학습도서 선정 활용, 우리 학교 교육내용에 맞는 자체 통지표 개발 활용, 연극, 음악 등 문화예술 초청 공연,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학교행사, 수영, 스키 등 계절운동 캠프와 각종 수련활동 등이 그것이다.

— 도농격차의 해소

우리 학교는 도농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현재 주어진 조건 속에서 도농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요즘 농산어촌의 많은 학교들이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실시되기도 한다.

첫째, 소득격차 때문에 학습 기회를 잃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급식비 이외의 여러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노력으로 2010년에는 무상급식이 된다면 우리 학교는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뒤떨어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학교에게 지원을 하



학부모 자녀교육 강좌

는 것인데 부진아와 특별보충지도 강사를 두는 것과 아이들의 심리치료를 위해 별도의 강사를 운영하는 것이다.

셋째, 교육복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야간 9시까지 대부분 무상 보육실 운영,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나 각종 심리검사나 다양한 수련활동을 학교 예산으로 지원하는 일이다.

—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학교

학교에서 학부모나 지역사회 관련 프로그램 운영은 평생교육이란 이름으로 취미, 교양 분야의 여러 강좌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것이 학교 - 학부모와 소통 수단이 되기도 한다.

우리 학교는 소통과 참여의 수준을 넘어 학교의 역할이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일자리나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찾고 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학부모, 지역사회 관련 사업을 정리하면 학부모 자녀교육 강좌(연4회), 학부모 평생교실(생활목공반, 한국화반, 중국어반, 에어로빅 등), 학부모 동호회 운영(볼링, 등산, 영화, 마라톤), 학부모 창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 교원의 자발성으로 새로운 학교 만들기

우리 학교의 경우 교원의 자발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연수와 토론을 통한 학교의 지향에 대한 공유가 중요했다. 우리 학교가 나아가야 할 큰 지향을 통해 교사 개인의 자발성을 높이는 일, 이것은 학교라는 삶의 공간에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도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원의 자발성을 높여 학교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학교에서 지원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연수를 비롯하여 학년전담제, 행정업무 경감(교무보조 공문 전담)이나 방학 중 근무 면제, 담임 보조 인력 활용, 위임전결, 학교운영에 교사들의 참여를 높이는 일 등이다.

이런 노력으로 우리 학교는 올 9월에 교과부에 의해 '전원학교'로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 의해 '혁신학교'로 지정받아 학교혁신에 더욱 힘을 내게 되었다.

물론 아직 학교교육의 혁신을 위해 갈 길은 멀다. 하지만 비록 2년이란 짧은 시간이었지만 조현초 교직원들은 학교는 변할 수 있고, 공교육은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체험한 것은 우리 교육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조현 교육과정 9형태

※ 동아리(4~6학년)를 제외하고 모든 학년 공통

학습형태	관련교과	내용	시간배치	연간시수(40분단위)
디딤돌학습	국어, 수학	연산, 어휘 중심	월, 화, 수, 목 각 20분	각34
다지기학습	음악, 체육	리코더 연주, 민속놀이(제기차기)	과제활동	
발전학습	전교과	학생이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1,3주 토 2시간	17~34
통합학습	교과통합	현장체험형	연 4회	24
문화예술학습	국어, 체육,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뮤지컬, 상상놀이터	주기집중	각12
생태학습	교과통합(무학년제)	생태탐사활동	연 2회	12
창조학습	재량활동	생태문화예술교육	주기집중	20
동아리	특별활동	동아리 활동	1,3주2시간	34
어울마당	특별활동(무학년제)	자치, 적응, 개발, 행사 활동 (학교, 학년별 행사)	매주 수1시간	34
연간 수업시간 수		4-6년 187, 1-3년 154시간		187

“학원은 커녕 학습지도 안시켜요”

-학생·학부모·교사 한마디-



문화예술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초청 공연

“전학을 와서 보니 낯선 것도 많았어요. 특히 논술평가를 처음 접해서 당황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흥미있는 공부거리가 많아서 좋았어요.”

(6학년 최재웅)

“연극은 놀이를 하는 것처럼 더 재미있고 신나게 공부를 한 것 같고요. 연극을 하면서 전에는 다른 친구들과 놀 때 어색하기도 했었는데 사이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3학년 이하은)

“다른 한국 학교들은 교과과정이 정형화돼 있고 수업 분위기가 엄숙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장려하는 이 학교의 교과과정은 매우 독특하다”

(원어민교사, Stuart Hardie)

“이제까지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연극 공연을 했는데, 이 학교 아이들만큼 다양한 반응을 보이면서 참여하는 학교는 드물었어요.” (극단 마실대표, 손해정)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학원 다니니까, 거의 학교에서는 수학 교과서만 푸는 수준이었는데 여기서는 학원 안 다녀도 될 수 있을 만큼 학교에서 가르쳐 주니까 좋은 것 같다. 전에 살던 분당에서 보다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더 많아졌고 더 밝아진 것 같아요.” (6학년, 조화수)

“조현 학교로 전학을 와서 가장 좋은 건 나무가 많고 공기가 맑은 것이었어요. 서울 학교와 달리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 시간이 많고, 새로운 공부도 많은 것도 좋아요.”

(1학년, 김준서)

“짜여있는 각본대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창조학습을 통해서 무대에 서는 게 부끄럽지 않고 자신감이 생겨서 좋았어요. 1학기에 한 창조학습보다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6학년, 박수진)

무대에 서는 게 부끄럽지 않고 자신감이 생겨서 좋았어요

“축제를 준비하느라 힘들기도 했지만 재미있었어요. 올해는 산종플루 때문에 우리끼리만 축제를 했는데 내년에는 부모님들 모시고 꼭 하고 싶어요.”

(2학년 이수린)

“그야말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해 고민하게끔 하는 교육을 해주는 것 같아서 불만은커녕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감동했어요. 그래서 고맙고 참 다행입니다. 학원은커녕 학습지도 안 해요.”

(학부모, 오자혜)



극단초청공연 - 연극



중국 자매학교와 국제교류활동



문화예술학습 - 상상놀이터

꽃술 하나! 꽃술 하나!

한 사람의 바른 생각이 많은 사람을 날마다 행복하게 하는 곳



초겨울 추위와 찬바람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11월 12일 구리남양주시회 회원 4명이 양평군 용문산 자락에 위치한 조현초등학교를 찾았다.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의 뛰어노는 함성소리와 웃음소리가 하늘까지 닿을 듯하였다. 뒤로는 산이 있고 주위엔 논과 밭, 앞에는 용문산에서 흘러내리는 작은 냇물이 흐르는 사골 학교.....

이 학교는 참 작지만 큰 꿈을 가꾸는 학교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학급씩, 전체 105명의 학생과 15명의 교직원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변화는 2007년 9월 1일 이종현 교장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부임하면서 시작된다.

“우리나라 교육은 굉장한 획일성을 가지고 있다. 전국적

으로 1만 2000여개 초·중·고교가 있는데, 똑 같은 교과서와 시간표 그리고 교육과정도 똑 같다... 아이들은 변하는데 학교는 획일적으로 국·영·수에 중심을 두고 있다. 아이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었고, 학교는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말을 들으며 교장 선생님의 안내로 학교구석구석을 돌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건강한 희망을 만났다. 온돌이 깔린 따뜻한 도서실의 폭신 폭신한 방석에 엎드려 책을 읽고 있는 아이들, 땀을 뻘뻘 흘리며 골프공을 날리는가 하면, 아이들이 가꾸는 텃밭과 학부모님이 만들어 세워주신 솟대.

아이들이 맘껏 상상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과 학부모가 지향해야 할 일이다. 교장 한 명 바뀌었다고 학교가 확 바뀔 수 있을까? 이종현 교장은 교사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학교 변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자발성을 가지고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장 부임 후 ‘새 교장이 교사들을 흡사시킨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조현초교사들은 열심이였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많다보니 연수도 많았으며, 새 학기가 시작되는 봄이면 뿔뿔이 흩어져 있는 학생들의 집을 교사들이 찾아가 학생의 환경을 살핀다. 교사의 학년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해가 바뀌어도 한 학년만 맡는 ‘학년전담제’도 조현

초의 특징이다. “삶의 참된 변화는 배움과 일상의 감동에서 온다. 감동은 아이들에 대한 신뢰와 열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교장의 학생관을 교사들이 동의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가정방문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높이는 역할도 했다. 부모에게 아이와 학교의 정보를 주고,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믿음이 생기고 학교 일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고민은 남아 있다. 교장 임기가 4년인데, 임기가 끝났을 때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 하나,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이다. 획일성 투성이인 공공교육의 개혁을 학부모로서 기대해 본다.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조현초 운동장에서 구김 없이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밧그레 상기된 얼굴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의 획일성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은 계속될 것이다.

집에 돌아와 한줄 메모를 썼다.

오늘 정말 멋진 학교에 다녀왔다.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학교. 아직도 가슴이 뭉다. 실패 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안의 끼를 모두 끄집어 낼 수 있게 인도해주는 교사가 있는 곳, 사람 냄새가 흐드러져서 뒹구는 곳, 주변 산과 들이 학습터 인 곳. 그 운동장에서 아이답게 초롱초롱 눈빛 반짝이며 해맑게 크는 아이들을 만났다. 희망을 만났다. 한 사람의 바른 생각이 많은 사람을 날마다 행복하게 하는 걸 보았다.

김명애(구리남양주시회 부지부장)

편집자주 :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15년.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조금씩 사라지면서 회원들은 점차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서 멀어지기 시작했고, 요즘은 거의 개인적인 결단으로 참여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 참여 활동이 침체되면서 앞으로 우리회의 학교참여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지역에서 열정적으로 했던 회원들이 모여 장기간의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속에서 실제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인 논의기구로서 학부모나 학교변화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또한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회의 학교참여 사업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 보는 간담회를 지난 11월 20일 한백교회에서 개최하였다. <교육자치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15년 점검과 학교참여 사업 방향 모색을 위한 내부 토론회

사회 | 윤숙자 정책위원장

토론 | 유지숙 전 서울지부장

6년차 학교운영위원 활동

정영배 전교조 참교육실장

96년부터 학교운영위원 활동

김정숙 부산지부 정책실장

8년간 학교운영위원 활동

정복순 감사

8년간 학교운영위원 활동

최은순 광주지부장

97년부터 초·중·고 운영위원 활동

전은자 교육자치위원장

6년차 학교운영위원 활동

해부터는 제가 들어가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운위 활동만 잘 하면 학교가 바뀔 것이라는 생각에 아주 열심히 온 몸을바친 것 같습니다.

유지숙 (이하 유) : 저는 2002년에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학운위를 통해 학교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법적기구로 학부모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정영배 (이하 정영) : 처음에 학운위가 심의기구로 법안이 통과하고 나서 교장의 권한이 분산되는 등 학교에서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김정숙 (이하 김) : 2002년에 시작했는데 학교현장에서 학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학교장이 어떻게 하는 지 등을 직접 보기 위해서 학운위에 참여했습니다. 또, 학교의 교사위원들과 함께 학교를 바꿔나가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복순 (이하 정복) : 저 역시 학교 현장을 바꿔야겠다는 의무감,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참학하면서 학운위에 대한 기대보다는 참학에 대한 신뢰, 기대감이 컸습니다. 참학이라는 조직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학운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전은자 (이하 전) : 저는 2003년도에 학운위를 시작했습니다. 학운위를 통해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부모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생기니까 기대감이 있었죠. 또, 참학 회원으로서 학교 현장을 바꿔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했습니다.

사회 참학에 대한 기대와 믿음 속에서 학운위에 참여하고 헌신적으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운위 등 학교에 참여를 하면서 어떤 활동들을 하셨

는지 대중적 활동사례를 중심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복 : 지역사회에서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운동장 아래에 지하주차장을 짓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잘못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백지화 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지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학교에 불법찬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해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불법찬조금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유 : 저도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바꾸자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급식개선을 위한 강의, 급식소위원회 활동을 했고 현재는 예결산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 : 급식소위원회하면서 소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학부모들과 함께 서류심사부터, 업체실사, 업체선정까지 소위원회 역할을 체계화 했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정했고요, 또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체육복을 공동구매하면서 학교 체육복의 디자인이나 품질 평가를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하면서 학부모들과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정영 : 교사인 저는 우리 학교에서 많은 숙원사업이 학운위를 통해 해결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학운위가 나서서 일반학부모와 함께 하는 축제 장터를 열었습니다. 학부모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학부모 강좌나 삼겹살 파티 등도 했습니다. 또, 학운위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사업도 열었습니다.

사회 :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참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활동이 학교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한계나 어려움은 무엇이었던지 한 분씩 말씀해주세요.

최 : 당시 굳게 닫혀 있던 학교 도서관 문을 처음으로 열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서관 바자회도 열었고, 학부모 독서회도 꾸렸습니다. 그 덕에 지금 광주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는 학부모 독서회를 만드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 외에도 반장선거를 윤번제로 한다거나 학부모회비를 내지 않기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김 : 반강제적으로 실시하던 우유급식을 학운위의 결정으로 학부모가 우유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고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영재 1% 교육을 하기 위해 영재원이 만들어질 때, 영재들을 선발하는 과정이 모호해서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 외에도 교복공동구매나 외국으로 가는 수학여행을 금지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최근에는 운반위탁급식을 하던 학교급식을 직영급식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 : 학교 당국이 변화의지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새로운 제안을 하면 학교는 해본 적이 없다, 어렵다는 이유로 학운위의



사회 (윤숙자) : 참교육학부모회의 내부적 역량이 침체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학운위가 의미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학운위를 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또 학운위 축소의 문제가 무엇인지 등과 관련하여 현재 학운위의 위치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처음 학운위를 시작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은순 (이하 최) : 저는 1997년도에 참교육학부모회(이하 참학)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마침 학운위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는데 학운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알고 나서 마음이 벅찼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처음 1년은 남편이 하게 되었고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서 다음

요구를 거절합니다. 정영배선생님의 사례와 달리, 많은 교사들이 학부모를 동반자가 아닌 조력자로 생각하거나 또한 학부모들의 주체의식이 부족한 것이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전 운영위원 구성의 문제입니다. 학부모 위원 모두가 학부모회와 연결되어 사전에 안전에 대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듣고 간다면 개인적인 의견으로 회의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학부모간의 갈등이 많이 해소될 것 같았고요, 교원위원들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부장교사 두 분, 평교사가 한분 밖에 안 계셨어요. 그나마 그 한분 선생님이 늘 소신 있게 말씀하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니다.

정영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와 교사 또는 교장의 소통이죠. 학부모와 학교 구성원은 동등한 파트너의 관계니까요. 조금더 교사들을 믿고 마음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교사와 학부모가 분열되고 소통이 안 된다면 학운위는 물론이고 학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학운위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문제입니다.

최 제도적인 문제점도 빼놓을 수 없죠. 처음 학운위가 설립되었을 때, 보수관료들이 많이 긴장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학운위에서 학부모가 안전을 발의하려면 몇 명이 상의 동의를 있어야 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학부모회 등이 법제화 되지 않은 문제 등 제도적인 한계가 많이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정영배

정영 학운위가 만들어지고 학부모회와 교사회의 법제화 등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하는데 후속절차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구조 자체가 기득권이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졌고, 진보 진영이 노력해서 만들었던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원위치 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 저는 학운위의 활동으로 학교현장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현대화 사업이나 성교육 등과 관련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도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학운위의 영향력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단체의 학부모가 아닌 일반 학부모들이 쉽게 학운

위에 다가가지 못하는 큰 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유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학운위의 문제도 있겠지만, 일반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에 무관심한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의식 있는 운영위원이 활동을 그만두면 학교가 다시 보수화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복순

정복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자신이 공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선거절차를 통해 선출된 학운위가 학부모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학부모들의 무관심 속에 학교에서 추천하는 식으로 선출되다보니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 학부모 역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참학이 학부모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요. 도서관 사업이나 급식위원 등 좋은 사례를 소개하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문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회 선생님들 말씀대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제도적인 결함과 더불어 주체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반성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참학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 일반 학부모들과 접촉면을 넓히면서 대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운위 전문성도 키워서 회의도 잘해야겠지만, 학운위 활동과 더불어 일반 학부모를 많이 만나기 위하여 자생단체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를 독려하면서 교육지원도 필요합니다.

최 참학의 활성화와 결부시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요즘 전문성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전문성을 키우고자 하는 것을 경제적인 부분으로 함께 연결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학운위에 전문성을 가진 학부모를 함께 키우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려면 우리회에서도 경제적인 여건이 함께 마련된 가운데 진행되

어야한다고 봅니다.



김정숙

김 전문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학부모들이 학교도서관사업이나 급식 등 학부모를 필요로 하는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학운위가 제도적인 한계나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힘이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학부모 대표성의 한계점, 학생이 빠진 의결기구라는 점, 학운위 토론 결정이 학교운영에 실제로 반영되는지에 대한 집행성을 보완해 나가지 않으면 민주적인 학교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유 학부모가 일상적으로 아이의 교육과 관련해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아이의 교육문제를 가지고 학급에서 아이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공간, 학급, 교육과 관련해 학부모가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영 학운위는 좋은 제도인데 현장에서 실천이 부족했고, 학교를 바꾸는데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학운위와 참학은 현재의 방식에 맞게끔 보완책을 세워야 합니다. 한꺼번에 학교를 바꾸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즐겁게 바뀌어나간다면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현장속에 학부모들 속에 참학이나 학교 참여활동이 어떻게 뿌리를 내릴 것인가, 학운위를 통하든 아니든 우리 활동이 학교 현장에 어떻게 뿌리를 내릴 것인가, 참학의 움직임 뿌리내리기 결론이 내려졌는데 마무리 발언해주세요.

정복 경직되어 있는 활동보다 유연하게 활동하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적이라고 규정하니까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를 두고 싸웁니다. 참학이 경직되고 전투적인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운위 역시 여러 학부모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참학이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참학이라고 하면 먼저 강한 투쟁성을 가진 싸우는 곳인 줄 압니다. 그래서 대화로 풀 문제를 일단 치고 보는 것 같습니다. 대화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편가르기가 아닌 소통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영 실천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제도개선을 하려고 과도하게 싸우다 보니 되레 지쳐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대중들을 확보하고 참학과 학운위의 의도를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즐겁게 대중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 처음에는 저도 경직된 상태에서 활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5년차가 되고 여유도 생기고 즐겁게 활동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욕심을 많이 부렸던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 같아요.

최 지금 이렇게 오래 활동한 회원들이 모여서 학운위 15년사를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는 1~2년차 되는 새내기 활동가로부터 듣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요즘 학부모들과 세대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젊은 학부모들을 통해 체계적인 준비를 꾀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전은자

전 처음 학교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학운위 활동을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부담스럽지 않게 학부모회나 다른 봉사 활동하면서 학교분위기를 조금씩 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뜻은 좋고 맞는 말인데 학교 분위기에 너무 거스른다고 일반 학부모들이 불쾌해하는 걸 많이 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활동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네요.

사회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업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강좌나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도 할 수 있겠죠. 학부모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해서 참학 회원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학이 뿔은 2009년 교육 10대 뉴스

〈편집자 주〉 어느 새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언젠 그렇지 않았습니까만 그야말로 정신을 차릴 수 없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우리 학부모들에겐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므로 지난날을 돌아보며 새날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문 송년호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경과〉 우리회 누리집을 통하여 공모하는 방식으로 우리 회원들의 다중지성을 통한 놀라운 지혜를 기대하며 여기저기 공지를 하였습니다. 수많은 회원들이 읽어보기는 하였습니다만 글을 써주시는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써주신 분들의 글은 제가 바로바로 숨겨 저장하였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워낙 바쁜 분들이라 많은 시간을 드려 검색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적어 보내주신다 해도 종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분야 주요뉴스를 간단히 정리한 다음에 모든 회원들에게 개인 메일로 보내드린 다음 취합된 결과를 종합하였습니다.

① 경기도의회, 초등학교 무료급식 예산 전액 삭감과 '교육국' 신설 추진



7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도서벽지와 농어산촌, 300명 이하 도시 취약 지역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한 예산 85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에 앞서 6월에 절반을 삭감해 격렬한 항의를 받았음에도 나머지 50%까지 모두 깎아버린 것이다. 아이들은 이미 자기반에서 누가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차상위 지원 확대는 눈치밥 먹으며 상처받는 아이들, 각종 서류 제출로 사생활이 공개될까 두려워하는 아이들의 깊은 상처를 방지하는 셈이다.

또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교육국을

설치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는 9월 4일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결국 교육의 근본을 생각하기 보다는 첫 직선으로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이른바 '반MB 정책'을 펴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전체의원 117명 중 101명이 한나라당 소속임)

②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 및 시국선언교사 징계불가 방침에 대한 교과부 직무이행 명령 추진



4월 8일 실시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후보가 104만 5767표 중 42만2302표를 얻어 40.81%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김상곤후보는 당선인

사를 통해 "오늘은 경기 교육이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명박정부가 강요하는 '특권교육' '줄세우기 경쟁교육' '대물림교육'을 경기도민의 손으로 심판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서민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부모가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인간적인 학교'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미래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로 질 높은 교육환경을만

들고 진정한 교육복지와 교육기회균등을 실천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또한 경기도 교육감은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교과부 직무이행 조치에 대해서 지난 11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다양한 의견의 평화적 표출은 민주주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므로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우리 사회와 일선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증폭될 수 있다"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교육감은 이미 지난 9월과 10월 사이에 74명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③ 4대강 사업과 부자 감세에 따른 무상급식 축소 및 학부모부담 교육비용 증가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2.7%에 그쳤으며, 보건복지예산안 중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보조

금, 한시생계보호예산 등은 전액 삭감됐다. 근로장학금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근로장학금을 받는 사람 중 20%가 다른 가족의 소득과 합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인 최저생계비 4인 가족 기준 132만원을 넘어서게 되면 그 가족이 받는 전체적인 지원이 오히려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예산편성은 국가부채

가 워낙 늘어서 예산의 규모를 늘릴 수 없을뿐만 아니라 부자감세와 4대강 토목공사를 위한 비용마련 때문이다. 교육분야 및 지역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무상 교육을 실시하려면 4대강 토목공사 예산을 줄이거나 포기해야 할 것이다.

④ 초·중·고 전국 일제고사와 성적공개, 성적 조작사태 및 일제고사 선택권 안내 교사에 대한 해직 처분



새 정부가 들어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제고사가 폐지된 지 10여년 만에 부

활했다. 학생 개인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줄겠다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걸고 시작되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 개인에게 과목별 석차와 백분위를 통보하고 학교별·지역별 점수도 공개함으로써 결국 지역별

학교별 학년별 학생별 '줄 세우기'에 의한 학습부담과 사교육비부담도 커졌을 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조차 학이 없어지는 기현상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벌어진 것이다. 학생을 가르친다는 선생님들에 의해 성적이 조작되는 반교육적인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학부모에게 일제고사 거부권이 있음을 알린 교사들에 대해서는 해직이라는 만행까지 서슴없이 벌인 것이다.

⑤ 외국어고 폐지논란



외고 지킴이를 자처했던 한나라당 쪽에서 '외고 폐지' 제안이 나오고 여권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지면서 이 문제가 사

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갑작스런 제안에 당황한 민주당과 진보진영이 여권의 분열구도를 미처 활용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세종시에 자사고는 물론 외고와 외국인 학교까지 세우겠다고 하는가 하면 "사교육비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수월성 교육도 손상 돼선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이명박대통령이 사실상 외고폐지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정두언 의원이 인터뷰에서 "사교육비 폭등의 주범인 외국어고를 폐지하고 자율형 사립

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에 이명박 대통령도 동조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음에 비추면 실로 어리둥절한 일이다.

외고는 단지 '사교육비 주범'에 그치지 않고 더 큰 교육적 사회적 해악을 끼치고 있으며 한국 중등교육의 문제가 응축된 일종의 암적 존재이므로, 외고 폐지 논란은 하나의 고교 유형을 그대로 두느냐 없애느냐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고교 체제 나아가 중등교육 체제를 개편하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진행을 하여야 할 것이다.

⑥ 자율형 사립고 정책과 고교평준화 해체 현상



이명박정부가 추진 중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설립계획이 발표되는데 이어 자율형 사립고도 그 모습

을 드러내고 있다. 2002년부터 전국에 6곳(광양제철고, 상산고, 민족사관고,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이 지정돼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와 달리 '자율형' 사립고는 고교 다양화, 수월성 교육 등을 내세우며 설립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법인 전입금(등록금 수입의 25%)과 장학금(전체 학생의 15% 이상) 비율이 높게 책정돼 있는 등 까다로운 기준이

많아 참여할 수 있는 사학이 한정돼 있으므로 수요에 비해 학교 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자율형 사립고를 확대한다면 입학하기 어렵고 등록금도 비싼자율형 사립고는 결국 일부 부유층 자녀를 위한 '귀족학교'가 될 것이고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지 못한 나머지 학교들과의 격차도 심해질 것이다. 결국 고교평준화 정책은 이름만 남게 될 것이며 우리 중등교육은 더 황폐해질 것이다.

⑦ 서울시 공정택교육감 당선무효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0월 29일 선거과정에서 차명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

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공 교육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날자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제자에게 무이자 1억900만원을 빌리고, 부인이 관리한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

판부는 제자에게 돈을 빌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차명재산 신고 누락 혐의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판단의 기초를 허문 행위라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가 있다. 교육감직은 내년 6월 시도교육감 선거가 끝날 때까지 김정희 부교육감이 대행하게 된다.

⑧ 조전혁 의원의 무분별한 수능성적 공개



수능성적을 공개하게 된 배경은 교육부의 교육적 소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작년 9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회에서 한나라당 조전혁의원이 기습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한 데 대하여 장관이 일렬결에 "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수락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전혁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받은 수능성적 정보를 한 일간지에 넘겨 분석하여 평균성적 및 1등급 학생 비율 상위 100개교 등을 드러내 보였다.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 성적을 비교하고, 평준화 학교 내

성적 격차등도 짚었다. 지금까지 수능 시험 결과를 개인별, 학교별로 공개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평준화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여 중등교육의 황폐화를 막기 위함'이었으며 따라서 학생들의 학력관련 정보는 연구목적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무책임하게 밝힌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⑨ 헌법재판소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조례'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서울과 부산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

을 내림에 따라 교육 당국은 시·도별로 들쭉날쭉한 야간교습 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통일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8월 헌법소원이 청구되고서 일선 학원 담당 공무원들이 위헌결정이 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인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최고 헌법기관이 정부의 학원 정책에 손을 들어준 만큼 더 입체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한참 성장기에 있는 '우리의 미래' 청소년들이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며 잠조차 충분히 잘 수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

⑩ 입학사정관제 확대 발표 및 적용



7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충북 괴산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논술이

나 시험없이 100% 면담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며 "대학에서 학교 성적 위주가 아니라 입학사정관이 고교와 상의해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학생을 뽑게 될 것"이라며 "과외와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더 불리해진다"며 대입제도의 개혁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입

학사정관을 통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특혜까지 베풀며 마치 이 제도가 우리의 교육풍토를 바꿀 것 같은 환상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 이 또한 '가진 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마당이 되면서 새로운 '교육시장'을 창출해내고 있는 것이다.

경기지부

10월 26일 도교육위원회에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고양지회

11월 6일 사물놀이 흙마음 창립 10주년 기념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성남지회

11월 17일 학부모미디어교육에 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양주지회



11월 14일
경기북부성문화센터
<딸콩달콩>문화체험(파주)
에 어린이 26명 어른 4명
모두 30여명이 다녀왔어요

용인지회

진지한 가운데 지속되고 있는 금요 미술심리치료 수업



의정부지회

10월 27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초청 강연회에
400여명의 학부모가 참석했습니다.



남부지회

“박현미지회장님 열른 회복하세요”

동아리에서 지회장님과 함께 간나들이를 추억하며 아이들처럼 생생해지시길..



광주지부

회원 만남의 날 양장피 만들어 먹었어요.
당연히 빼갈도 있었겠죠?



부산지부

친환경 벼베기체험과 떡메치기
: 매뚜기 방아깨비가 뛰노는 논에서



울산지부

역사기행 : 11월 14일 역사가 비껴가지 않는 청도를 찾아서



대구지부

영어캠프 : 우리말로 극본을 작성한 후 그것을 영작해 보는 과정



경남지부

10월 30일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강좌를 진행했어요



광양지회

교육환경개선사업 토론회
: 성적 우수학생 고등학교 중심으로 추진해 불만



진주시회

11월 4일 회원 만남의 날을 거나하게 가졌습니다



나주시회

11월 13일
'식단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강좌 진행했어요

11월 21일
이다경선생님과 함께 한
<아름다운 가족 세우기> 프로그램



상주시회

동아리 <참꽃노리타>에서 특별한 미술전시회(회원 화가)에 다녀왔어요



학습 부진아 실태 분석

부진아에 대한 진단과 지원 불일치

편집자주

정부는 일제고사를 통해 드러난 학습부진아에 대해 특별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습부진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우리회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과 전교조는 지난 5월부터 「가칭」학습 부진아를 위한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학습 부진아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학습 부진아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연속 3회의 기획기사를 준비하였으며, 그 첫번째 글을 올린다. 2회 학교현장의 실태, 3회 대안마련을 위한 4개 단계 간담회를 기획하고 있다.

이 글은 지난 29일 국회의원 안민석 의원실과 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한 간담회에서 좋은교사운동 김진우 정책실장이 발표한 '학습 부진아 실태 분석' 자료를 요약 발췌한 내용이다.

실태 분석결과

1) 진단과 지원의 불일치

- 지원의 기초가 되는 통계가 부정확하다.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과학습부진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교과학습부진아를 제외한 기초학습부진아 숫자만 다루는 한편, 지원액은 교과학습부진아를 포함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학습부진아 1인당 투여되는 지원의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학습부진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의 예산까지 합하여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진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이 또한 교과학습부진학생의 규모가 파악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예산의 근거

가 되는 기초적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은 학습부진아를 위한 정책 수립 역시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 진단과 지원이 불일치하고 있다.

일제고사의 목적이 학습부진아를 발견하여 지원하고자 함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드러난 학습부진아 현황과 지원이 비례하지 않는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의 경우에 학습부진아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액은 감소하였으며, 광주, 대전의 경우에는 학습부진아의 규모에 비해 지원액은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일제고사를 전수로 실시하는 명분이 학습부진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공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아도 180억 정도가 늘어난 정도에 그쳤고(2008년 243억, 2009년 428억), 시도별로 볼 때는 오히려 서울, 부산, 대전, 전북에서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 일제고사를 위한 예산은 334억에 이르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습부진아에 대한 충분한 지원 체제에 대한 고민도 없이 일단 일제고사만 치른 셈이 되고 말았다.

2) 지원의 영세성

-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 2009년 교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습부진아 1인당 지원금액은 76,700원으로 산정됨에 비해 영재대상자 1인당 지원금액은 5.3배인 403,910원에 이르고 있다.

- 시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인천의 경우 학습부진아 1인당 수당은 시간당 17,000원인데 비해 영재교육의 경우 1차시는 70,000원, 2차시는 50,000원 등으로 책정되어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통계치로 추산해보건대 기초학습부진아의 경우 주당 1-2시간의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는 오랫동안 누적된 학습부진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의무교육의 일차적 목적은 모든 학생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명제에 비추어 보면 학습부진아에 대한 지원이 영재교육에 비해 영세하다는 것은 의무교육 본연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 실제로 지원 규모를 떠나 학습부진아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질 또한 문제다. 실제로 성취도 평가 이후 각 교육청에서 압력을 가하여 학교마다 전체적으로 학습시간을 늘리고 학습부진학생을 강제적으로 교육시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학습부진의 원인은 다양하며 맞춤형 학습지도가 해야 한다는 것에 비추어보면 진단도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지도 또한 획일적 형태의 문제 풀이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3) 학력향상중점학교 예산의 불안정성

- 2009년 하반기부터 집행되는 학력향상중점학교 예산의 경우 840억이 투입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부실하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 이후 갑자기 임시방편적으로 편성된 성격이 강하다. 단위학교에서는 갑자기 하달된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 학력향상중점학교 지원예산의 경우 특별교부금 형태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향후 지원의 지속성이 불확실하다. 영재교육의 경우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되는 것에 비해 학습부진아를 위한 예산은 관련 법률적 근거가 없이 임시적인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학습부진아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증보판)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치학

지방교육자치의 현실과 '이상'

김용일 지음 | 2009년 8월 10일 | 560면 | 34,000원



지방교육자치의 정치-역사적 맥락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지방교육자치제도 = 교육행정의 민주화'라는 신화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한편,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면서 "지방교육 정치-행정의 민주화"(중간 목표)와 "보통교육단계의 교육기본권 강화"(궁극적인 목표)가 제도 개편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증보판에서는 '국민의 정부' 이래 어떠한 정치과정을 거쳐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 왔는지를 소상히 밝히고 있으며, '참여정부' 시절에 단행된 제도 개편은 물론 비(반)교육적 동기에서 비롯된 이명박 정부의 지방교육행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을 담고 있다.

김용일 시리즈

위험한 실험

2001년 3월 20일 | 13,000원

'문민 정부' 시절에 시작된 5.31 교육개혁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해 있으며, '소비자주권'을 앞세워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교육권을 부정하는 등 교육의 민주주의적 조건을 잠식해왔다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다.

교육의 미래

2002년 9월 25일 | 15,000원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점을 논증하는 한편,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교와 대학에 교육 본연의 가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Q&A
상담실

담임교사의 “다른 반으로 가라”라는 말에 집으로 와 버린 아이

부모가 교사에게 아이의 심정을 차분히 전달하고,
아이에게도 상황 설명 충분히 해야...

Q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의 아버지이다. 2학년, 3학년 초에 각각 이사를 하면서 학교를 옮겼고 3학년부터 지금까지 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세 번째 학교인 셈이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충돌한 적이 없었는데 요즘에 와서 담임선생님과 충돌이 잦더니 급기야 오늘은 좀 심한 일이 있었다.

어제,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하고나서 아이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보니 많은 반에서 DVD 시청이나 가벼운 체육수업 등으로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풀어 주었나 보다. 하지만 아이 반에서는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했고, 아이 반 아이들은 좀 심통이 났나 보다. 그런 와중에 오늘 수업시간에 우리 아이가 “다른 반은 지금 〇〇〇을 하고 있어요.”라고 선생님에게 말했고 이 말을 들은 선생님은 “그러면 그 반으로 가!”라고 했단다.

평소에 담임선생님을 좋지 않게 얘기 할 때마다 아이를 타이르곤 했었는데 아이가 다른 반이 부러워 한 말에 그렇게 한 걸 들으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는 육하는 마음에 가방을 꾸러서 교실을 나와 버렸고, 선생님은 아내를 학교로 오라 하여 “결석처리 하지 않을 테니 아이 데리고 가서 반성하

고 공부할 생각이 들 때 보내세요.”라고 했다. 문제를 일으킨 적도 별로 없는 아인데... 다른 아이들에게 본패를 보여주기 위해 심하게 한 것 같다.

나 역시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 지 혼란스러워 상담한다. 담임과 문제가 생긴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자존심과 오기가 강한 아이이고 평소 토론을 많이 해서 그런지 가끔 말대꾸한다는 지적도 받은 한다. 어찌 됐건 아이와 이야기를 통해 해결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지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공부일 텐데 이렇게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담임과는 어떻게 관계를 풀어가야 할까? 아버지인 나는 직장관계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주말에만 가족과 만난다. 멀리서 전화상으로 아이 소식을 듣다보니 갑갑하기만 하다. 아예 사골로 전학을 시켜서 함께 사는 게 좋을까?

A 같이 생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화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학부모는 너나 할 것 없이 선생님이 나 친구들과 잘 지내면서 학교생활 잘 한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한데 말이지요.

먼저 아이의 속상한 마음을 읽어주세요. “많이 속상했지? 선생님이 다른 반으로 가라고 말했을 땐 정말 놀랐겠다”라고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마다 수업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사정에 따라 수업내용도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집 아이와 성적이나 성격 등을 비교 당할 때 기분이 나빠지는 것처럼 교사도 사람인지라 다른 반 선생님과 비교당하는 기분이 들어 순간적으로 화가 났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세요.

교사의 적절치 못한 언행에 대해서는 학부모님이 담임선생님에게 직접 얘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라서 불쑥 생각 없이 한 말에 반을 옮기라는 말까지 한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닌지...; 선생님의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대응 방식을 자주 보다 보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배울 터이고, 그런 태도로 친구들이나 교사를 대하게 되어 잦은 갈등을 빚을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마음을 전하세요. 사람들은 특히, 아이들은 별 생각 없이 무심코 하는 말에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금방 모방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결석기간이 길어지면 학교 가기가



더 어색하고 부담스러우니 담임선생님과 말씀을 잘 나눈 후, 빠른 시일에 학교에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는 점점 어머니가 혼자 감당하기 힘든 나이가 되어 가는데 가족이 떨어져 지내는 것이 걱정되네요. 그렇다고 벌써 세 번이나 전학했는데 또 전학하는 것도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닐테고요. 어머니와 아이, 셋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상의하십시오. 특히 전학문제는 아이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적응과정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니 아이 의견을 충분히 들으세요. 일이 잘 해결되어 아이가 즐겁게 학교생활하길 바랍니다.

제공 : 학부모상담실

13기 상담원교육을 마치며

나의 삶을 변화시킨 상담원교육



상담원 교육 첫 강의 시간에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 “어떻게 해서 상담원 교육을 받게 되었는가?”였다.

나는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원이 되겠다는 구체적인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고 시작한 교육이었다. 그런데 왜 이 교육을 받으려 했을까? 생각해 보니 나는 한창 아이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이었다. 막연하게 그 고민의 답이 나에게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지만 그 가닥을 잡지 못하고 힘겨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상담원 교육을 통해 내 고민

이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의 고민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생긴 새로운 고민이었다. 친구문제, 새로운 놀이문화, 학교생활, 학교에 대한 궁금증 등 많은 생각들과 고민들이 생겼다. 아이가 성장하는데, 아이의 삶인데 왜 나에게 고민이 생기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상담원 교육에 참석했다. 교육을 받을수록 나의 작은 고민보다 나의 삶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다. 나는 누구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내가 생각하는 삶이 건강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것이다.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나의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는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교육을 받으면서 조금씩 나를 알아가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요즘은 고민이 좀 줄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변화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란 것도, 조그마한 관심으로 주위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생겼다. 생활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신문에 나오는 교육에 대한 기사도 스크랩하고, 아이의 학교에도 관심을 갖고, 학교 설문지에도 성의껏 답변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체크하는 것으로 끝났을 일을 객관식 설문에 주관식 답변을 하는 과한 열의도 보이고 있다.

나는 13기 상담원 교육을 받았다. 상담원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육받는 시간이 기다려졌고,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서 교육받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도 했다. 유쾌하고 친절하고 이야기가 통하는 인생선배들과 보내는 시간도 기다려지고 전업주부로 있다가 아침에 책과 연필을 챙겨 집을 나서며 무언가를 배우러 간다는 사실도 나를 들뜨게 했다. 상담원교육이 나에게 새로운 지식을 가져다주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해주었으며, 무엇보다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었다. 배우면 배울수록 궁금하고 알고 싶어지는 것이 많아지나 보다. 앞으로도 꾸준히 배우고 익히고 나눌 수 있는 내가 되는 욕심을 가져본다.

김정인(13기상담원 교육생)

짧지만 굵었던 인터뷰



사실 내가 이 단체를 방문하게 된 이유는 과제 때문이었다. 나는 현재 학교에서 인권과 정의 라는 인권 관련 강의를 듣고 있던 중 교육 인권 단체를 방문

해 인터뷰를 하고 오라는 과제를 받았고, 그래서 적절한 인권단체를 검색하던 중 우연히 이 단체를 알게 되어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사실 인권단체를 뉴스나 교과서에서만 보았기 때문에 실제로 방문한다는 게 낯설고 어느 정도는 부담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짧았던 1시간의 인터뷰 후 나에게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주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나의 어머니가 중학교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내가 교육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에 대해서는 사회 사람들이 흔히 바라보는 인식인 안정된 직업인 수준에 그쳤을 뿐이었다. 교육의 대상인 학생으로서도 인권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로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데에만 집중해서 살았다. 그런 나에게 교육의 인권이라는 주제의 인터뷰는 신선하고도 한편으로는 낯선 경험이었다.

이 인터뷰 후, 내가 그 동안 의식하지 못했던 사이에 겪었던 인권 침해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각 3년을 보낸 나는 철저한

대학입시에 매몰되어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었다

한국의 교육제도 하에서 자랐다. 내가 21살임을 생각해 보면 한국의 교육제도는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이 제도 하에서 오로지 좋은 대학만을 목표로 공부했을 뿐, 밤늦게 졸린 눈을 비비며 학원을 다니던 내가 인권을 침해 받았다고 생각해 보지는 못했다. (나는 외고를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외고를 준비하며 스트레스를 받던 내 친구들이 인권을 침해받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여태껏 해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이 인터뷰는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참교육 학부모회를 방문하고 안타깝게 느꼈던 것

은, 우리나라의 인권단체의 상황이 아직까지는 열악하다는 점이었다. 법의 테두리 밖에 있어서, 때로는 잘못된 법에 의해 보장받지 못하는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단체에 대해 정부는 당연히 충분한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권단체의 지원이 정부의 입맛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모습에 대한 부회장님의 설명을 듣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인권이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나 자신이 나 자신의 권리에 대해 너무나도 무관심하게 살아왔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치기만 했을 뿐이었다. 인터넷에 글을 제대로 올려 투고를 해보거나 집회에 참여하는 등의 직접적인 참여는 하지 않고 단지타인의 투쟁 결과물을 받아먹으려는 자세만 가졌던 것이다. 이런 나에게 직접 발로 뛰면서 교육에 관한 인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 발로 뛰면서 활동하는 모습은 귀감이 되었고, 또한 나 자신에 대해 반성을 하게 만들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성심 성의껏 인터뷰에 응해주신 송환웅 부회장님과 그 외 참교육 학부모회 관계자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신재연(서강대학교 3학년)

쉽 터



군말산책 6



최기종(목포지회)

꽃을 위하여

아내라는 말에는
고약한 냄새가 난다.
아내라는 말에는
세상의 향기가 난다.

최기종 시집 《나무 위의 여자》중에서

-. 군말

행복한 가정에는 항상 말꽃이 피어난다. 말꽃이라고 하니까 고상하고 화사한 수사로 꾸며진 언어, 잘 다듬어진 값나가는 언어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진짜 말꽃은 상대의 심사를 배려하고 상대의 에너지를 도와주는 호응의 언어를 말한다.

김춘수는 〈꽃〉이란 시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읊었다. 그러면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으로 남는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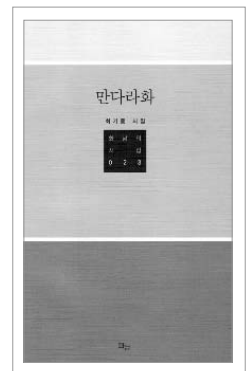
부부살이에서도 행복의 지름길은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하겠다. 내가 먼저 말꽃을 피우지 않으면서 상대의 향기나 온기를 바라는 것은 억지춘향이식이다. 내가 몸을 낮추면서 배려의 숲을 이룰 때만이 행복이 은은하게 화사하게 피어나고 온전한 부부살이가 될 것이다.

그런데 부부살이 이십 년을 넘기다 보면 아내란 존재는 쓴 약과도 같다. 아니면 누룩냄새 풍기는 술과도 같은 존재다. 언젠가 경제 문제로 아내와 다툼 적이 있었다. 그때는 아내가 몽니를 부려서 싫었다. 아내가 불평불만 투성이고 잔소리꾼으로만 여겨졌다. 그래서 아내란 말에는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속엿말을 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내가 아집에 빠져서 아내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 몸 돌바를 몰랐다. 나이 들어서 아내는 달콤한 사탕이나 껌으로 비유되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일마다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존재로 여겨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미혹의 불바다로 방향기 잡은 나를 만류하고 쓴소리 해 줄 존재가 바로 아내이다. 내가 타끌처럼 작아졌을 때도 아내는 내 걸을 지켜줄 것이다. 아내의 말에는 세상의 향기가 난다.

최기종(목포지회)

1 시간안내



화남의 시집 023

최기종 시집 **만다라화**

158쪽 값 8,000원

최기종 시인이 노래하는 꽃들은 거의 모두가 우리나라 산하에 피고 지는 꽃이다. 이 땅에 수수백년 뿌리를 내리면서 향기를 내뿜어온 어쩌면 우리들 모두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나라 꽃들! 최기종 시인이 간절한 몸짓으로 달라붙어 노래하는 우리나라 꽃들 속에는 그의 고향이 파릇파릇 담겨있으며 그의 어머니와 이웃이 고운 얼굴로 이슬 젖어 있다.

— 김준태(시인, 조선대 인문대 초빙교수)

213호부터 쉽터 코너에 최기종 회원의 군말산책을 실었다. 최기종 회원의 시집 『나무 위의 여자』에다 군말을 덧붙여서 부부 사이를 조명하는 글이다. 군말은 사전 뜻으로 '쓸데없는 말'이지만 한번쯤 짚고 넘어갈 말이기도 하다. 이 쉽터를 통하여 우리 부부 사이를 한번쯤 생각해보자.

대학생의 학습권이라니?

원고를 써달라고 하신다. 그런데 이전 필자의 글이 너무 어렵다는 반응이니 쉽게 써달라고 하신다. 왜 글이 어려울까? 문장은 쉽다고들 하는데, 왜 그럴까? 혹시 사회 전반적으로 대학강사의 교원지위가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필요하다는 개념이 형성되지 않아 생소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대학생의 학습권을 듣는 학부모의 반응은 우선은 회피하는 태도다. 대학생은 성인인데 부모가 대학교육까지 관심을 갖고 개입해서는 안 된다, 비싼 등록금이 문제다, 졸업 뒤에 일자리를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대학의 내용이 어떠한지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다. 3차방정식이나 미적분을 풀지 않으려하면서 수학이 어렵다고 했듯이. 대학생에게 물어본다. 부모님은 낮은 등록금-질 낮은 강의와 비싼 등록금-질 높은 강의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할까 물어보면 당연히 후자일 것이라고 답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학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국 다음으로 비싼 등록금-질 낮은 강의이다.

그러면 질 높은 강의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질 높은 강의는 대학생이 졸업한 뒤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남을 해치지도 내가 해침을 당하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고 하는 방법을 익히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물속으로 떨어지지 않고 지혜롭게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학문의 핵심과 사회의 현실과 이면을 알려주면서 자신이 나갈 길을 교수와 학생 간에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터득할 수 있다. A학점을 받아 정규직

으로 취직해도 곧 4,5정이 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90세까지 자신의 하고 싶은 일을 발전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평생교육 틀의 터득이다.

오늘의 대학에는 정규직 교수와 시급 강사의 차별화를 통해 우리 사회 기득권을 유지하고 지식인을 통제하는 유신독재 우민정책의 유물이 온존한다. 강사는 교원지위 없는 상태에서 피해야 할 성역과 금기가 많다. 자본 정부기업 대학재단 총학장 전임교수의 비위를 거스르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 많다. 당대의 논객 중앙대 진중권 강사(겸임교수)의 해고에서 보듯이 교원지위가 없는 상태에서는 토론은 고사하고 자신의 학문 내용과 소신을 그대로 말할 수 없다. 전국에서 5천-1만여 명의 강사가 해고돼도 강사 아무도 교원지위 회복을 주장하지 못한다. 강사 해고 방침을 받아 수행한 6만 5천 전임교수 가운데 누구 하나 거부하거나 나중에라도 양심선언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제 대학은 산업화시대나 통했던 암기위주의 일방적 주입식 교육, 대답 질문 토론 없는 교실붕괴를 벗어나야 한다. 지식기반사회에 걸맞게 학생과 젊은 강사를 비롯한 교수가 함께 하는 토론식 수업으로 학생들이 창의성, 종합적 사고, 현실 대처의 지혜를 터득하게 해야 한다.

또 강사들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교육 외의 목적으로 전용된다. 전임교수와 강사가 강의를 절반씩 담당하는 상태에서 전임교수는 평균연봉이 주9시간 강의에 1억여 원이고 강사는 주9시간 강의(2명)에 1천여만 원을 받



는다. 강의원가의 45%가 강의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닌 다른 데로 누수 된다. 이것을 막는다면 등록금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하면 질 높은 강의-낮은 등록금 즉 대학생의 학습권 회복이 가능하다. 이런 변화의 전제는 대학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이다. 김진표,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의결을 요구하며 강사가 국회 앞에서 810일 넘게 텐트농성하며 세 번째 겨울을 맞고 있다. 강사 학생 학부모 시민이 국회 교과부 대교협 서울대 고대 이대 국민대에서 1인시위 중이다.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기대한다.

김영곤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투쟁본부 집행위원
고려대학교 강사)

터널 곁핥기

내년에 모든 거사를 치러야 하는 난 18살 홈스쿨러다. 고졸검정고시와 수능이라는 거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험하디 험한 터널. 누구나 한번을 거쳐야 할 공부라는 터널이다. 손전등을 켜 사람은 이 터널을 쉽게 지나갈 수 있고, 아닌 사람은 헤매게 되어 있다.

모든 사람들을 경험 해 봤을 것이다. 힘들면 포기하고, 다시하고, 포기하고..... 나도 수차례 그래왔다. 검정고시 때 잠깐 할 거 없어서 잠깐 그렇게 곁핥기식이었다. 그 이상의 진전이란 없었다. 아니, 이렇게 하다보면 내 손에 손전등이 쥐어질 줄 알았고, 불도 켜질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 공부하는 법도 모르는 내가 터널 입구를 찾을 리가.....

난 공부에 관해선 켜병이다. 집중력, 끈기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노하우도 없다. 그냥 하다보면 생기겠지 하는 마인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하나씩 생각

해 봤다. 엉덩이 힘! 공부하는 엉덩이 싸움이란 말이 있듯이 그 힘부터 길러야 했다. 엉덩이가 작은 것도 끈기가 없는 것도 다 그 탓일지도 모른다.

엉덩이 힘을 기르기 위해선 집중도 잘 되고 조용한 곳을 택해야 했다. 그게 바로 도서관이다. 과외도 학원도 있다. 하지만 그건 그 때뿐. 학생들은 알 것이다. 결국 중심은 나란걸. 나 혼자서도 해결 할 줄 알아야 하고, 이해하고, 나만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걸. 시험장에선 모든 걸 나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걸. 그것 역시 가장 잘 해결해 줄 곳은 도서관이다. 사람도 환경도 시간까지 맞춰서 하면 딱 이다.

나처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내 노력이 통한 건지 집중도 잘 되고, 오래 앉아 있게 됐다. 남들보다 더 오래, 더 많이, 더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경쟁심이 생겨서 그런 것 같다.

더욱이 도움 되는 건 내 포레 애들이 오면 어떤 문제집을 쓰는지 어떤 강의를 듣는지를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강의 고르랴 문제집 고르랴 너무 많은 시간이 투자되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아는 문제집도 선생님도 없기 때문에 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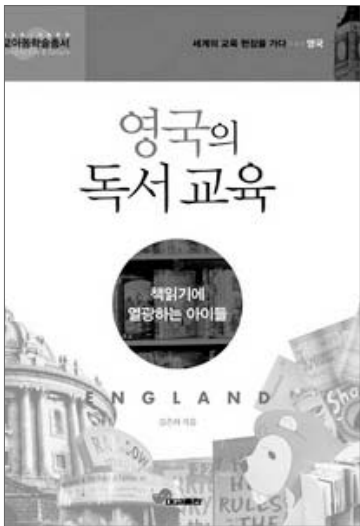
좋은지 잘 모른다.

중간에 공부가 하기 싫으면 책을 봐도 된다. 옆 사람이 재밌는 책을 읽으면 나도 한번 읽어본다.

그렇다고 도서관이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다. 불편한 것도 있다. 도서관 의자는 엉덩이부분이 너무 딱딱하다. 의자 끄는 소리가 시끄럽고, 잘 때도 불편하다. 밥값도 너무 비싸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 데 한 끼에 4000원씩 주고 밥을 먹으려면 너무 부담이 크지 않은가. 이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주변이 너무 좋다. 집중이 안 될 정도로, 공부하다가 나가고 싶을 정도로 예쁘다. 지상낙원이라고나 할까?..... 가끔은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게 슬플 때가 많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이 너무 한정 돼 있다. 도서관에서 종이접기, 책 만들기 등 갖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연령이 초등학교 아니면 성인을 위한 것밖에 없다. 물론 그 시간 때에는 청소년들이 없고, 안 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렇다고 해서 연령을 정해놓는 건 청소년은 아예 배제시킨다는 얘기다. 나 같은 사람도 있는데 말이다. 연령대를 폭넓게 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여진(홈스쿨러)

‘영국의 독서교육’을 읽으며



책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를 알려주는 한겨레신문 토요 특집 ‘책과 세상’을 늘 꼼꼼히 살피던 중 ‘영국의 독서교육’ (대교출판, 김은하)에 대한 장정일 작가의 글을 통하여 이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서란 혼자 읽는 것이란 생각에서 벗어나, 함께 하는 활동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구절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받아 보니 ‘하니? 대교아동학술총서’저는 그만 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독서에 대해서는

물론 ‘아동’에 대해서도 전문지식은커녕 기초지식조차 없는 내가 어찌 이 책을 읽을 것인가... 그래도 어쨌든 손에 들어왔으니 하는 마음으로 책을 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목과는 달리 쉽고 재미있고 부러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의 주인공이 그려진 책장에 코코아를 마시며 종이접기와 학교숙제를 하는가 하면, 중고도서 벼룩시장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고, 작가와 만남을 통하여 사인을 받고 함께 사진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교과서가 없는 영국에서는 관련된 책이나 교사가 복사해서 나눠주는 책의 일부가 주요 교재가 되다보니 그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은 더 많고 다양한 책을 접하게 되며, 과제와 평가를 위하여 학교나 공공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역설 앞에 그만 멍해졌습니다. 어려서부터 기차 지붕이나 사자 등에 올라타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시설에서 즐기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평생 책과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몸으로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과정 또한 큰 틀로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예를 들어 정부구성에 대해 배울 때에도, 우리나라들은 대

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정의 장점 단점을 말끔히 정리해 놓은 교과서를 통하여 배우는 데, 영국아이들은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를 옹호하는 글이라든가 기원에 관한 글, 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글을 수업자료를 통하여 접한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차츰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만을 알게 된다면 우리 학부모로서 무슨 이유로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에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아주 분명하고 재미있는 힌트가 넘쳐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서 또한 더불어 이뤄져야 할 활동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교육환경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저자의 말대로 “내 아이에게 맞는 방식을 찾고, 우리 동네와 학교, 도서관에서 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풍부한 사진 자료 또한 책을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며, 학술총서라는 말에 겁먹을 필요 없이 중학교 정도면 우리 아이들에게 읽혀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송현웅(언론정보출판위원장)

▶ 좋은 프로그램 엿보기

EBS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자

교육을 바꾸자고? 또? 수시로 바뀌는 게 우리교육. 더 좋아지기 위해 바꾼다는데, 아무리 바꾸고 바뀌도 잡음만 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힌트는 EBS는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자〉에 있었다! 총 5편에 걸쳐 방송된 EBS 창사특집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자〉를 소개한다.

1부에서는 〈우리는 미래 인재를 키우고 있나〉, 2부는 〈미래교육 새 틀을 찾아라〉, 3부에서는 〈미래사회, 학교는 살아남을까〉, 4부는 〈사교육비 절감, EBS의 역할은〉, 5부는 〈왜 모두 대학에 가야만 하나〉라는 주제로 교육, 경제, 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벌였다.

1부는 오현석, 유순신, 박정철, 홍사중 씨가 출연했다. 토론자들은 성춘향-이몽룡은 15세였는데 17세를 과연 성인으로 봐야 할까? 정자용 시인은 몇 살에 장가를 갔을까? 와 같은 소재를 통해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각에 대해 조명한다. 또, 미래를 이끌 어갈 인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아이들의 능력을 기르려면 사회와 국가는 어떤 지원을 해야 할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는 김영철, 박금주, 정미라, 김태철씨 등이 나와 토론을 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이라는 기본 골격은 1951년 개정 교육법 그대로인데, 과연 아이들을 이 학제로 계속 가르쳐도 될까라는 의문에서 토론은 출발한다. 또 미래 사회에서 사람의 직업이 평생에 걸쳐 수시로 바뀔 텐데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국민 누구나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줄도록 교육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다룬다. 즉, 교육이 아니라 학습의 틀에서 대한민국 학제의 틀을 고민하자는 이야기였다.

3부의 주제는 조금 더 흥미롭다. 과연 미래사회에 학교는 살아남을까라는 주제다. 미래학자들은 교육혁명시대, 즉,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홈스쿨이 증가하고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학교들은 그런 교육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3부에서는 정재승, 박영숙, 이수광, 송승훈 등이 출연해 대화를 나누며 예견하는 학교의 미래상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심도있게 논의했다.

4부는 문용린, 이원희, 진성호, 최재성씨 등이 나와 한국경제를 뒤흔드는 사교육비의 원인을 짚어보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그 해법을 EBS의 프로그램에서 모색했다. EBS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으며, 5부에서는 문용린, 권대봉, 박주현, 박정철씨 등이 출연하여 왜 모두가 대학에 가야하는지 논의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총 20조원. 대학진학률은 84%다. 그만큼 바꿨으면 공교육도 자리를 잡고 아이들도 즐겁게 교육을 해야 할 텐데. 바꾸면 바꿀수록 뒤죽박죽이 되는 이유는 바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기 때문.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 되냐는 말이 바로 이런 때 쓰는 것일까.

도대체 왜! 라고 생각해온 아이들과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고 어떻게 하면 될지 방향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 EBS 〈창사기획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EBS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한유나(언론정보출판위원장)

사설

입학사정관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입시철이 다가오니 정부가 다급해졌다. 정운찬 총리까지 나서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수능 이후 성행하고 있는 논술대비 단기 고액 불법과외는 물론 입학사정관제 관련 고액 컨설팅에 대해 관계 부처 합동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고질적인 점수경쟁과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된 입학사정관제가 현실에서는 고액 사교육을 유발하는 제도가 되었다. 참 이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다. 성적보다는 학생의 잠재력, 창의력, 적성을 고려해 선발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성적뿐만 아니라 적성이나 잠재력이라는 추상적인 것까지 갖춰야 하는 입시제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준비도 안된 대학들은 입학사정관제를 확대 도입하느라 서로 눈치 보며 애쓰고 있다. 또 학교현장은 획일화된 입시교육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어떻게 학생부에 기록할 것인가, 무엇으로 학생의 성장 가능성과 소질, 적성을 평가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에 빠져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

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 결국 사교육 입시기관에 의존한다.

더구나 명문 사립대에서 경쟁적으로 입학사정관제를 확대 도입하니 학부모들은 더욱더 동요하지 않을 수 없다. 입시 전문가가 아니면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를 어떻게 준비할지 모른다. 때문에 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신종 고액 사설 컨설팅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다. 수 백 만원을 요구해도 수요자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서 쉽게 사그라질 수 있을까.

또다시 대치동 엄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치동 엄마들의 눈으로 서울대를 비롯하여 명문대 합격생들의 평가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입학사정관제의 특성과 각 대학 전형 방법, 초·중·고 12년 로드맵 등을 제시한 책까지 나왔다. "학업환경,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노력과 성취, 자기 표현 능력을 수학능력과 더불어 평가한다." "보통 고교 3년의 시간을 '본 게임'이라고 한다. 그러나 입학사정관 도입이 시작된 지금, 게임의 토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야 한다."라고 충고한다. 눈앞이 아찔하다. 그리

고 한숨이 절로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정부 들어 학부모들은 고통스럽다. 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교육정책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입학사정관제라는 흑이 하나 더 붙었다. 얼마 전 정부 여당은 외고를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이라면서 외고폐지 논란에 불을 지핀바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창의적 인재와 잠재력 있는 인재를 선발한다는 본래 취지에서 한참 벗어나 교육현실을 왜곡 시키고, 고액 사교육을 유발한다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명문사립대에서 경쟁적으로 입시 명문고를 우대하는 고교 등급제를 적용할 우려때문에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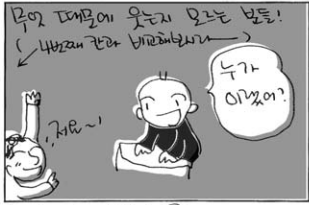
입학사정관제는 교육환경이 어려운 가운데도 자기 주도 학습으로 특정 분야나 적성에서 잠재력을 보이는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방법이어야 한다. 즉, 지역 균형 선발, 기회 균등 선발의 기제로 사용되어야지 지금처럼 점수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사교육으로 준비된 가정배경이 좋은 아이들을 뽑기 위한 장치여서는 안된다. 그것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타조알 선생의 교실 풍경

언어유희

이 만화는 <타조알 선생의 교실 풍경> 중 언어유희'를 실은 것 입니다. <타조알 선생의 교실 풍경>은 봄·여름·가을·겨울로 나누어 1년 동안 학생들과 부딪치며 발생하는 상황을 만화로 옮긴 것 입니다. 저자의 허락하에 1년 동안 연재합니다.

<타조알 선생의 교실풍경>
지은이 _ 이성수
출판사 _ 나라말
가격 _ 9,000원



신나는 언어유희! 중계시간이 즐거워집니다

발행처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발행인 정은숙
편집위원 송환웅 오명실 이희정 임영희 정은숙 전은자 한유나
주소 (우)110-100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 73번지(2층)
전화 02-393-8900 전송 02-393-9110
상담실 02-393-8980
누리집 www.hakbumpo.or.kr 한글주소 참교육학부모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정은숙 수석부회장 송환웅 부회장 김석순 최주영 감사 임영희 서경자 정복순 상담실장 박부희 정책위원장은 윤숙자 교육자치위원장은 전은자 조직위원장은 최주영 언론정보출판위원장은 송환웅 상근자 심정숙 원소영		
서울지부	02)3491-5235	지부장 최정화
	남부지회 02)588-8980	지회장 박현미
	동북부지회 02)3491-5235	지회장 최정화
인천지부	03)2438-3970	지부장 김은중
경기지부	03)1864-3958	지부장 서애란
	고양지회 03)1905-5893	지회장 이현숙
	구리남양주지회 03)1568-2311	지회장 차경희
	성남지회 03)716-8583	지회장 김윤주
	양주지회 03)1864-3958	지회장 정영미
	용인지회 03)281-7969	지회장 정용훈
	의정부지회 03)1876-2816	지회장 오명실
	파주지회 03)1955-2623	지회장 김부정
	수원지회 010-9195-2075	지회장 정연훈
	김포지회 070-7761-9890	지회장 노계향
강원지부(주)	원주지회 033)763-6423	지회장 윤금옥
충남지부	041)576-6677	지부장 김영숙
	천안지회 041)576-6677	지회장 박갑주
	홍성지회 011-5420-3979	지회장 조성미
	서산태안지회 010-9599-0658	지회장 김한중
광주지부	062)228-6998	지부장 최은순
전북지부	063)535-0191	지부장 권승길
	전주지회 063)231-9770	지회장 임혜순
	정읍지회 063)535-0191	지회장 장세희
전남지부	061)334-9271	지부장 오승주
	목포지회 061)284-6575	지회장 김승진
	화순지회 061)375-9109	지회장 문은아
	나주지회 061)334-9271	지회장 김정숙
	장흥지회 011-631-1074	지회장 신성호
	영암지회 010-4618-0962	지회장 최옥주
	광양지회 010-5622-5333	위원장 이희정
대구지부	053)751-4070	지부장 양승희
부산지부	051)556-1799	지부장 채승영
울산지부	052)268-0987	지부장 고영호
경북지부	017-511-9143	지부장 신현자
	안동지회 010-2971-0780	지회장 김승균
	포항지회 054)242-9143	지회장 신현자
	칠곡지회	지회장
	구미지회 011-506-2601	지회장 김성희
	상주시회 019-289-0839	지회장 김영선
	의성지회 010-8422-0923	지회장 임창대
	경주지회 010-7580-8796	지회장 신경진
경남지부	055)282-1950	지부장 장귀령
	진주시회 055)748-1352	지회장 김미선
	거제지회 055)638-4130	지회장 최양희
	마창진지회 055)282-1950	지회장 배경희
	사천지회 010-2225-8384	지회장 박영옥
	김해지회 010-3359-9579	임정현
	거창지회 010-3867-6607	지회장 유수상
	밀양지회 010-9955-0148	지회장 하정훈

자문위원회 ● 이규원(자문위원장·전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강순원(한신대 교수)/김지원(법률사무소 청지 변호사)/권정희(홈 미디어교육센터 소장)/김기태(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김민남(전 경북대 교육학과 교수)/김영삼(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교사)/김용일(한국해양대 교직과정 교수)/김이경(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 실장)/김홍렬(선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김희연(여성사회교육원 원장)/도종환(사인)/민덕기(화산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박수선(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장)/배옥영(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송대현(전교조 경북지부 상담교사)/송병준(변호사)/이재분(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소장)/임재택(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전양숙(서울 심리상담 소장)/정홍택(상명대학교 석좌교수)/조상희(법무법인한창조 변호사)/최문순(국회의원)/최현섭(전 강원대학교 총장)

집에 오면

목소리를 죽입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학교 학원 과외 돌고

책상에 간신히 앉는 아이를

마음 졸이며 바라봅니다.

‘우리아들, 좋은 대학 갈 때까지만 꼭 참자.’

‘좋은 대학만 가면 길이 열리겠지.’

하지만 스멀스멀 불안이 밀려옵니다.

아들이.....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그 시절을 지나온 나는

행복한 걸까?

아들이 안쓰러운 아빠가

“별써 자니? 시험이 코앞인데.”

건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영화는 대화가면 실컷 볼 수 있잖아.”

교양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루에 문자를 몇 통이나 주고받는 거니?”

친구가 많은 아이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학원 늦겠다. 머리 좀 그만 만져!”

매력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성적보다 중요한

꿈을 주고 싶었습니다.

— 딸에게 미안한 엄마가

수능 점수보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요?

진로를 고민하는 부모와 자녀를 위한 책

부모가 먼저
읽으세요!

직업에 관한 고찰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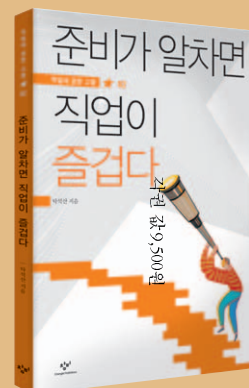
직업의 의미에서 성공 비결까지
본질을 꿰뚫는 직업 이야기

**성적은 짧고
직업은
길다**

직업에 관한 고찰 02

직업을 찾는 방법에서 준비까지
즐거운 직업을 위한 실전 매뉴얼

**준비가 알차면
직업이
즐겁다**



탁석산 지음



탁석산 경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에 입학했으나,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자퇴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역시 적성에는 맞지 않았고, 같은 대학철학과

www.changbi.com

대학원에 입학하고 나서야 비로소 편안함을 느꼈다. 이 책은 여러 차례의 진로 선회와 가나인 고민 끝에 비로소 직업의 세계로 들어선 한 철학자의 직업과 인생에 관한 고찰이다.

창비 031-955-3333
Changbi Publishers